

# 조경수의 해충

- 남천에 피해를 주는 해충 -

남천(*Nandina domestica*)은 중국이 원산지이며 매자나무과에 속하며 우리나라 남부지역에서 관상수로 많이 식재되며 애호가들에게 인기가 많은 수종이다. 특히 가을에 붉게 물든 잎이 겨울까지도 붉은 색을 그대로 간직하여 겨울내 잎 없이 삭막한 겨울을 나는 여러 활엽수와는 달리 아름다움 자체를 가진 나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겨울에는 송이송이 달려있는 붉은 열매가 아름다운 정원이나 공원 등지에 군식(群植)하여 악센트식재, 차폐식재, 경계식재용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열매와 줄기는 약재로 사용되며, 열매가 황색으로 익는 것은 노랑남천(var. *leucocarpa*)이라고 한다. 요즘에는 다채로운 원예종으로 개발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우리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남천에 피해를 주는 몇몇 해충 종에 대해서 생태 및 방제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최광식**  
(국립산림과학원 남부산림연구소)  
choiks99@forest.go.kr

## 1. 배붉은흰불나방

- 학명 : *Spilarctia subcarnea*
- 소속 : 나비 목(Lepidoptera) 불나방 과(Arctiidae)
- 기주식물 : 남천, 포도, 감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 배나무, 벗나무, 자도나무, 복사나무, 찔레류, 밤나무, 버드나무류, 포플러류, 쥐똥나무, 은행나무, 장미, 진달래 등
- 분포 : 한국, 일본, 중국, 대만, 필리핀

### • 피해

잡식성해충으로 각종 활엽수 잎을 가해하며, 국지적으로 대발생하는 돌발성해충이나 나무를 고사시키지는 않는다.

### •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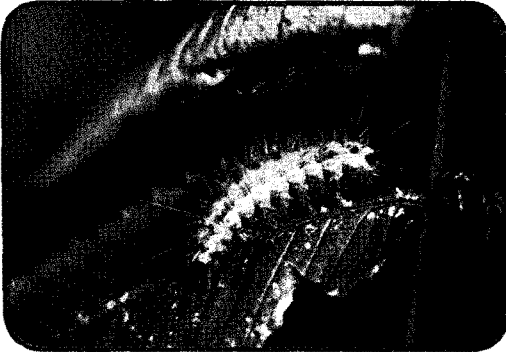
암컷 성충의 앞날개 길이는 암컷이 25mm내외, 수컷은 20mm 내외이다. 1회기와 2회기는 날개색이 다르며, 앞날개 색깔은 연한 황색이나 뒷날개는 1회기의 것은 백색, 2회기 것은 붉은색을 띤다. 앞날개에 검은점이 있으나 화기나 개체에 따라 그 수와 크기는 차이가 있다. 성충의 더듬이는 암컷은 톱니모양이나, 수컷은 빗살모양을 띤다. 배와 가슴은 연한 흰색이고, 배마디, 앞다리, 가운데 다리는 붉은색이다. 유충은 전체적으로 황색을 띠며 등 부위는 약간 검은색이고, 황백색의 긴 털이 종피 형태이다. 유충의 가슴 측면에는 수평의 길고 가는 수염 같은 털이 1쌍 있다.

• 생활사

년 2회 발생하며, 번데기로 월동하여 이듬해 5-6월에 1회기, 2회기는 7-8월에 출현한다. 유충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관찰되나 자란 생활사는 밝혀져 있지 않다.

• 방제법

유충 발생 초기인 5월에 유충이 눈에 잘 띄므로 발견 즉시 피해 잎을 제거하거나 잡아 죽인다. 발생 밀도가 높을 때는 페니트로티온 유제(50%) 또는 델타메트린 유제(1%) 1,000배액을 잎이 흠뻑 젖도록 살포한다.



배꼽은 흰불나방 유충

•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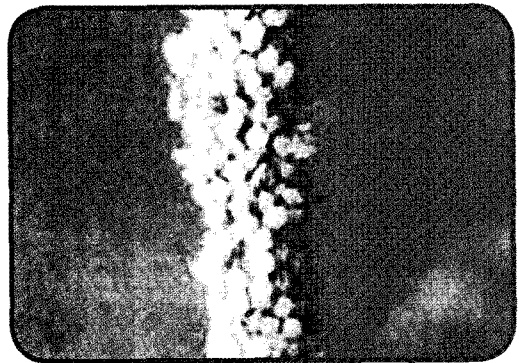
무시태생 암컷 성충의 몸길이는 2mm 내외이고 타원형이며 녹색을 띤다. 더듬이는 몸길이 보다 짧고 검은색이다. 배는 둥글며 넓은 원추형이며 옆으로 몇 개의 센털이 있다. 유시태생 암컷 성충은 무시태생 성충과 비슷하나 머리와 가슴 중앙부가 검은색이며 날개가 투명하다.

• 생활사

보통 알로 월동하나 따뜻한 남부 지방에서는 무시태생 암컷 성충으로 월동하기도 한다. 주기주인 조팝나무에서 월동한 알은 4월경에 부화하여 새가지를 가해하고는 5월 중순에 유시태생 암컷 성충이 출현하여 명자나무로 이주하여 10월 중순에 주기주로 이동하여 줄기에 알을 낳는다.

• 방제법

약충 및 성충 발생 초기에 메티다티온 유제(40%), 이미다클로프리드 수화제(10%)를 1,000배액으로 희석하여 10일 간격으로 2회 살포한다.



흡즙하고 있는 조팝나무진딧물

## 2. 조팝나무진딧물

• 학명 : *Aphis spirecola*

• 영명 : *Spiraea aphid*

• 속속 : 매미 목(Hemiptera) 진딧물 과(Aphididae)

기주식물 : 남천, 조팝나무류, 사과나무, 밤나무, 사철나무류, 팽나무, 분꽃나무, 명자나무, 모란, 매발톱나무, 복사나무, 국수나무류, 노박덩굴, 황매화, 장미, 매실나무, 산사나무, 아왜나무 등 다수

분포 :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북미, 남미, 유럽

• 피해

성충과 약충이 새가지부와 새로 나온 잎에 모여 살면서 흡즙하므로 새가지의 성장이 저해된다. 피해를 받은 잎은 뒷면으로 말리며 여름에 낙엽이 된다.

### 3. 이세리아각지벌레

- 학명 : *Icerya purchasi*
- 영명 : Cottony-cushion scale
- 소속 : 매미 목(Homoptera) 이세리아각지벌레 과 (Margarodidae)
- 기주식물 : 남천, 팡팡나무, 동백나무, 주목, 후피향나무, 백목련, 은행나무, 감나무, 식나무, 아까시나무, 무화과, 모란, 목련, 돈나무, 복사나무, 장미, 사과나무, 협죽도, 치자나무 등 다수
- 분포 :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미국, 아프리카, 호주
- 피해  
주목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벌레로 새 가지에 모여 살면서 흡즙하므로 수세가 악화되며 그을음 병을 유발시킨다.


#### • 형태

암컷성충의 몸길이는 5mm정도이며 타원형으로 등황색을 띤다. 등면에 융기선과 다수의 털이 있다. 배면은 옅은 주홍색이며 더듬이와 다리는 검은색을 띤다. 더듬이는 11절로 되어 있으며 다리에 긴 갈색 센털이 있다. 입들은 작고 계란 모양의 항문은 등면 끝부분에 위치하여 긴 갈색의 센털로 둘러싸여 있다. 알주머니의 길이는 12-13mm이고 타원형의 백색이다. 알은 타원형으로 등황색을 띠며 약충은 타원형으로 암홍색을 띤다.

#### • 생활사

년 2-3회 발생하며, 성충 또는 약충으로 월동한다. 발생이 불규칙하여 알, 약충, 성충이 동일한 시기에 모두 발견되거나 약충의 개체수가 비교적 많이 출현하는 시기는 6월 상순, 8월 상순, 10월이다. 성충은 1세대에 600여개, 2세대에 200여개를 산란하며 약충은 가해 수종의 잎에 기생하여 즙액을 흡즙하다가 새가지로 이동하여 정착한다. 발생 개체수가 많을 때에는 줄기에 모여 사는 경우도 있다. 수컷은 2령 약충 말기에 구별이 가능해지며 3령기에는 입들이 없고 활발하게 움직여 탈피할 장소에 정착 후 고치를 짓고 번데기가 된다.

#### • 방제법

발생 개체수가 적을 때에는 기생된 새가지나 피해가지를 제거한다. 발생 개체수가 많을 때에는 약충 발생시기에 메티다티온 유제(40%) 또는 이미다클로프리트 수화제(10%), 액제(4%) 1,000배액을 줄기가 흠뻑 젖도록 10일 간격으로 2회 살포한다. 



이세리아각지벌레 성충

